



## 유행로 활동지와 함께 전시물을 보고 있나요?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구석기실

##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돌로 만든 도구입니다. 먼 옛날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돌을 주워 그대로 사용하거나 쓰임새에 맞게 적당히 깨뜨려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돌을 깨뜨려 만든 것을 뎀석기라고 해요. 처음에는 돌을 직접 내리치는 '직접 타격법'으로 만들었어요. 이후 돌 위에 뾰족한 돌을 올려 내리치는 '간접 타격법'이나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눌러떼기' 방법을 사용해 만들었대요. 주먹도끼는 만능 칼이라 불리는 현대의 '맥가이버 칼'처럼 찢고 자르고 땅을 파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 신석기실

## 바리(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흙을 불에 구우면 단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그릇의 형태를 빚은 뒤 불에 구워 토기를 만들었지요. 야외에서 토기를 구울 때 흙과 공기 중의 산소가 만나 성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토기가 붉은색을 띠게 되었어요. 토기는 음식의 저장과 운반뿐 아니라 조리에도 이용되는 훌륭한 도구였어요. 이전에는 날로 먹거나 불에 구워야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을 삶거나 찌서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흙 반죽을 띠 모양으로 길게 만든 다음 둥글게 말아 올려 그릇 모양을 만들고, 그릇이 다 마르기 전에 뾰족한 무늬 새기개로 빗살무늬를 새겼어요. 이 무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신석기인들의 미적 감각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청동기실

## 농경문 청동기

농경문청동기는 농사짓는 모습이 표현된 청동기입니다. '농경'은 농사짓는 일을 뜻하는데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어 청동기시대에 더욱 발전했어요.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경문청동기에 그려진 작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청동기는 발견 당시 아랫부분이 없고 전체가 녹으로 뒤덮여 있어 문양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녹을 다 제거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고리가 달린 앞면에는 마을을 지켜 준다는 솟대와 비슷한 나무에 앉아 있는 새가 표현되어 있고 뒷면에는 따비(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를 든 남자가 농사짓는 모습, 밭고랑, 팽이를 들고 있는 모습, 수확한 곡식을 항아리에 담는 모습 등이 표현되어 있지요. 이처럼 농경문청동기는 청동기시대의 농경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 고구려실

## 강서대묘(고구려 무덤벽화 모사도)

고구려의 무덤인 강서대묘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로 이루어진 수호신이 그려져 있어요. 하늘의 동쪽과 서쪽은 청룡과 백호가 지키는 자리예요. 북쪽의 수호신 현무는 뱀과 거북이가 얽힌 모습인데요, 무덤을 지키는 수호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벽화 속에서 무덤 주인 곁에 그려졌어요. 남쪽의 수호신 주작은 고분 벽화 속에서 암수 한 쌍으로 그려지곤 해요.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 주인이 죽고 나서 지내게 될 세상을 수호신들이 평화롭게 지켜 준다고 믿었습니다. 강서대묘뿐만 아니라 고구려 무덤 벽화에는 고구려인의 생활 모습과 종교, 사상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고구려사는 물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 백제실

## 치미

기와 건물 지붕의 용마루 양 끝에 달린 큰 장식 기와를 치미라고 해요. 치미는 화재를 가져오는 귀신인 화마를 쫓기 위해 지붕 양 끝에 올렸어요. 불을 막아준다는 믿음 뿐 아니라 건물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장식의 의미도 가진 치미는 새 날개 또는 물고기 꼬리의 모양을 나타내요.



왕흥사 치미는 현재 남아 있는 치미 중 가장 오래된 것이예요. 날아갈 듯 한 생동감 있는 모양에 연꽃무늬, 구름무늬, 풀과 가지무늬 등이 표현되어 있어요. 치미는 크기가 커서 전체를 한 몸으로 만든 뒤 위 아래로 잘라낸 다음, 가마에서 구웠다고 추정해요. 지붕 장식도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백제 장인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어요.

### 신라실

## 금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는 금관이 여러 점 발견되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에 있는 이 금관은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에서 발견되었어요. 왕과 왕비의 무덤이 이어져 있는 황남대총은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큰 무덤'이란 뜻으로 신라에서 가장 큰 무덤입니다. 그중 북쪽에 있는 왕비의 무덤에서 이 금관이 발견되었어요. 무덤 주인이 머리에 쓴 채로 발견되었으나 금관을 실생활에서도 사용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해요. '황남대총 북분 금관'을 자세히 보면 둥근 금띠에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의 금판을 세우고 드리개를 늘어뜨렸습니다. 나뭇가지와 사슴뿔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표면에는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곰은옥과 열매를 상징하는 달개를 달아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신라의 금관은 화려한 문양과 섬세한 장식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요. 반짝반짝 멋진 금관에는 또 어떤 장식이 있는지 천천히 찾아볼까요?



## 고려실

### 물가 풍경 무늬가 새겨진 청자 정병

정병은 깨끗한 물을 담아 부처님께 바치는 물병이에요. 위로 뾰족하게 올라온 곳이 물을 따르는 곳이고, 아래 손잡이처럼 생긴 곳이 물을 담은 곳이에요. 청자 정병뿐만 아니라 도기 정병과 청동 정병도 있지요. 고려실에 전시된 이 청자 정병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진 물가의 풍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정병 표면에 그림을 그린 후 선을 따라 칼로 파내고, 그 자리에 색이 다른 흙을 채워 넣는 상감 기법을 사용했어요. 청자 정병을 만들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은입사 기법이에요. 정병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긴 후 은실을 박아 넣는 기법이지요. 은입사 기법으로 청동 정병을 더욱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3층 금속공예실에서 은입사 기법으로 물가 풍경 무늬를 표현한 청동 정병을 찾아보세요.



## 고려실

### '청녕 4년'이 새겨진 종

절에서 사람을 모으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해 치는 종을 범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범종은 외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소리가 맑고 웅장하죠. 범종은 밀랍 주조 기술로 제작했어요. 밀랍으로 만든 범종 모형 표면에 황토와 모래를 섞어 바른 뒤 열을 가해 밀랍을 녹여서 거꾸집을 만들죠. 이 거꾸집에 쇠물을 부어 굳히면 범종이 완성되지요. 종의 꼭대기에는 종을 매달 수 있도록 고리 역할을 하는 용뉴가 있고 용뉴 뒷부분에는 음통이 붙어 있어요. 향아리를 거꾸로 얹어 놓은 듯한 형태에는 종의 밑 부분이 좁아지면서 소리의 울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리가 담겨 있어요. 덕분에 종을 치면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고 여음이 길어져요. 우리나라 범종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끊어질 듯 계속 이어지는 여음이 특징이에요. 이를 맥놀이 현상이라고 해요. 맥이 뛰는 것 같은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 소리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져요.



## 대한제국실

### 고종황제 어진

익선관을 쓰고 황색 곤룡포를 입은 저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1대 황제 고종이에요. 고종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했어요. 이 어진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뒤에 그린 것이에요. 고종은 이제 조선의 '왕'이 아니라 대한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인 황색의 곤룡포를 입은 모습을 그린 것이지요. 사진기가 없던 시절 초상화는 증명사진 역할도 했습니다. 어떤 초상화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초상화를 그릴 때, 앞면만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으로 된 뒷부분에도 색을 칠하는 배채법을 사용했어요. 두꺼운 종이를 쓰는 서양 그림과 달리 비단이나 한지를 사용하는 동양에서 쓰는 독특한 방법이지요. 2층 서화실에서 채색 안료와 초상화 제작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 고려실

### 금속활자 (고려의 인쇄문화)



금속활자는 납이나 구리 등의 금속으로 만든 활자예요. 글자마다 하나씩 따로 만들었지요. 가장 먼저 ①종이에 붓으로 쓴 글자를 밀랍 덩어리 위에 뒤집어 붙인 뒤 ②글자 모양 그대로 새겨요. ③밀랍에 새긴 글자 위에 진흙 반죽을 씌운 뒤 ④열을 가해 속의 밀랍을 녹여 내어 공간을 만들지요. ⑤여기에 쇠물을 부어 굳힌 후 진흙 반죽을 뜯어내면 금속 활자가 완성되지요. 고려실에 전시되어 있는 금속활자는 '복(覆)'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 (남한)에 하나밖에 없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랍니다.

금속활자 외에 다른 인쇄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무판(목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찍는 목판 인쇄법도 있었답니다. 목판 인쇄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찍어내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른 책을 인쇄하려면 목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점이 불편했어요. 이와 달리 금속활자는 책의 내용에 맞게 글자를 조합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바로 만들 수 있지요.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하려면 활자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활자를 판에 고정하는 기술, 금속에 잘 묻는 먹물을 만드는 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금속활자를 이용해 책을 만든 것으로 보아 고려의 과학 기술이 매우 우수했음을 알 수 있지요. 금속활자는 조선시대에 더 활발하게 만들어졌답니다. 이때는 무수히 많은 활자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전용 보관장도 있었어요. 활자장의 모습은 1층 조선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조선실

### 대동여지도와 목판



대동여지도는 1861년에 김정호가 만든 한반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해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도를 각각 1첩으로 엮었습니다. 각각의 첩은 펴고 접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지도를 편리하게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제작된 22점의 첩(帖: 묶어 놓은 책)을 모두 펼쳐 연결하면 크기가 세로 6.7m, 가로 3.8m인 초대형 지도가 된답니다.

대동여지도는 복잡한 글자를 대신해 다양한 기호를 활용했어요. 산줄기와 물줄기를 바탕으로 마을, 교통과 통신시설, 군사시설 등 각종 정보를 정교하게 조각하고 기호를 활용해 지도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어요. 또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측정하기 편하게 했지요. 목판에 새겨 인쇄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했답니다. 대동여지도는 근대 측량 기술로 제작된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지도로 우리 민족의 지도 제작 전통이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 발행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이 활동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